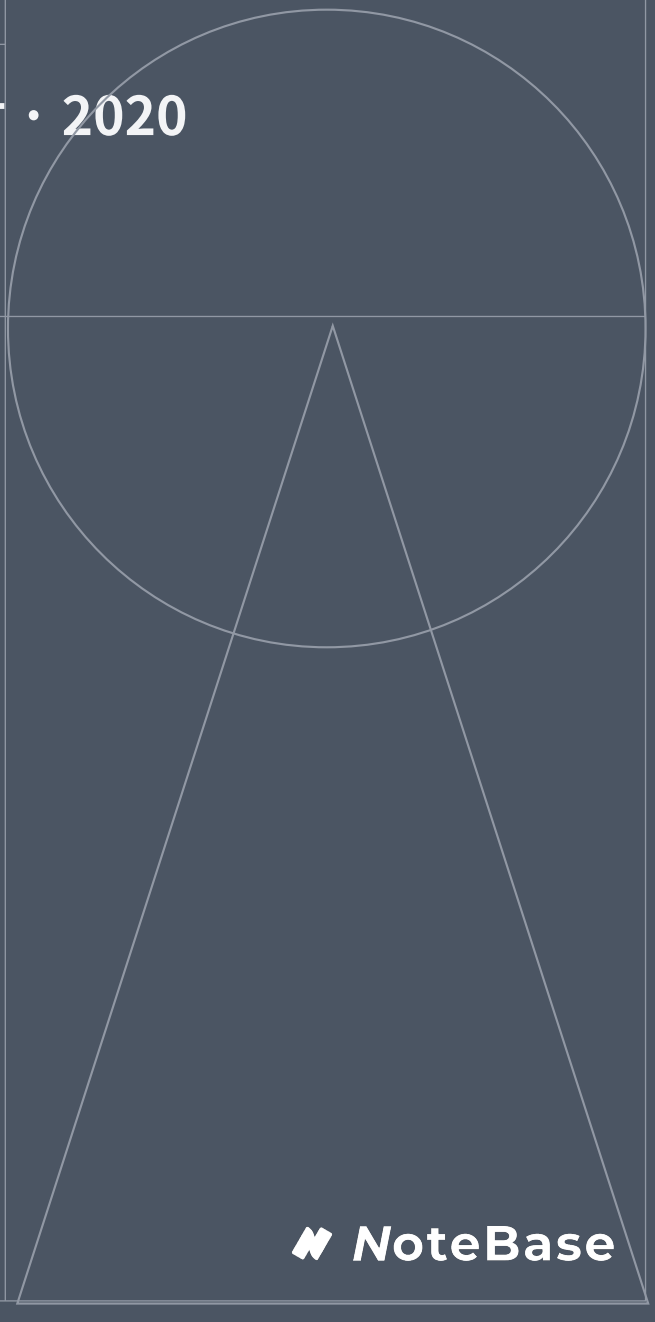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0

문 1.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① 기술대학

② 산업대학

③ 시민대학

④ 사이버대학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에 열거된 학교 종류와 평생교육기관 성격의 명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열거된 학교를 말한다.

핵심 구분

「고등교육법」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둔다.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에 포함되지만 시민대학은 이 법의 학교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이 문제의 O/X는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학교이므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한다.
② O: 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이므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한다.
③ X: 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 시민대학
올바른 표현: 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기관 성격의 명칭이다.
④ O: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에 포함되므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이버대학은 원격교육이라는 형식 때문에 학교 밖 기관으로 오해하기 쉽고, 시민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 때문에 법정 학교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열거 여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상 기관 범위를 묻는 문제는 먼저 해당 법 조문이 기관 종류를 열거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가 그 열거 목록 안에 있는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도인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등교육법 학교 종류에는 사이버대학이 들어가고 시민대학은 들어가지 않는다.

NoteBase

문 2.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

② 민주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회균등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

③ 합법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적이고 경직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이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되고 정치·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인 효율성, 민주성, 합법성, 자주성의 의미와 각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성은 적은 투입으로 큰 교육성과를 내는 원리이고, 지나치면 교육의 인간적·본질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민주성은 교육행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여론을 반영하는 원리이고, 지나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합법성은 교육행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원리이고, 지나치면 형식주의와 경직성을 낳을 수 있다.
자주성은 교육이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 고유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원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성의 원리를 과도하게 앞세우면 교육을 성과와 관리 중심으로만 보게 되어 교육의 본질과 인간 형성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저해"라는 표현이다. 민주성의 원리는 참여와 여론 반영을 중시하는 원리이므로 기회균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의 대표적 부작용은 의사결정 지연, 능률 저하, 전문성 약화이다. 올바르게는 "민주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다.

③ O
합법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규와 절차를 형식적으로 따르는 데 치우쳐 융통성이 떨어지고 경직된 행정이 되기 쉽다.

④ O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이 일반행정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정치·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선지의 설명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민주성과 기회균등은 모두 긍정적 가치이므로 서로 충돌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고전적인 연결은 민주성 과잉으로 인한 능률 저하이고, 기회균등 저해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또한 ④는 자주성과 중립성을 함께 묶어 제시해 낯설게 보이지만, 교육의 독자성 유지라는 큰 틀에서는 맞는 설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행정 원리 문제는 각 원리의 핵심 가치와 과잉 강조 시 부작용을 짝으로 묶어 판단하면 된다. 효율성은 교육 본질 훼손, 민주성은 능률 저하, 합법성은 형식화·경직화, 자주성은 일반행정과 정치로부터의 독립으로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효율성 과잉은 본질 훼손, 민주성 과잉은 능률 저하, 합법성 과잉은 경직, 자주성은 일반행정·정치로부터 독립이다.

NoteBase

문 3. 두 교사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교장의 생각과 일치하는 예산편성 기법은?

김 교사: 내년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대축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사: 아니, 그런 행사를 추진할 돈이 어디 있어요? 금년 예산을 보면 가능한 일인가요?
김 교사: 글쎄요. 교장 선생님이 일단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 교사: 그렇군요. 그럼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요.

① 기획예산제도
② 성과주의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 드러난 예산편성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당 예산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하였다.
- 김 교사는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하였다.
- 이는 기존 예산 규모나 전년도 편성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따져 보라는 뜻이다.

핵심 개념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과 경비를 영점에서 출발해 다시 정당화하는 예산제도이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편성된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기대지 않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판단 기준은 기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가이다.
교장이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한 대목이 영기준예산제도의 핵심 특징과 직접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 사업계획, 예산을 연계하여 목표 달성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장기계획의 연계보다 기존 예산에 얽매이지 않는 출발점에 있다. 틀린 표현은 '금년 예산을 생각하지 말라'를 기획예산제도의 특징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장기 목표와 사업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② X: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보다 업무량, 산출,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사례에는 성과지표나 업무 실적에 따른 편성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성과 중심 편성으로 이해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사업의 실적과 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 O: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 예산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고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한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교장의 생각과 일치한다.
④ X: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처럼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나누어 통제하는 전통적 제도이다. 사례처럼 새 사업의 필요성을 영점에서 검토하는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틀린 표현은 새 계획을 기존 품목 통제 방식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지출 항목별 배분과 회계 통제를 중시하는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두 계획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단서는 장기계획 자체가 아니라 기존 예산을 일단 배제하고 새로 검토한다는 표현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예산 문항에서는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지 확인한다. 기존 예산을 그대로 전제로 삼지 않고 사업을 처음부터 정당화하면 영기준예산제도이고, 성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성과주의예산제도이며, 장기 목표와 사업 연계를 강조하면 기획예산제도이다.

암기 포인트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영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산제도이다.

NoteBase

문 4.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회적 이슈화
ㄴ. 정책결정
ㄷ. 정책의제설정
ㄹ. 정책집행
ㅁ. 정책평가

① ㄱ → ㄷ → ㄴ → ㄹ → ㅁ
② ㄱ → ㅁ → ㄷ → ㄴ → ㄹ
③ ㄷ → ㄴ → ㄹ → ㄱ → ㅁ
④ ㄷ → ㅁ → ㄱ → ㄴ →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교육문제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선후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사회적 이슈화 - 교육문제가 공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단계이다.
2. ㄷ 정책의제설정 - 여러 문제 중 정부가 다룰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단계이다.
3. ㄴ 정책결정 - 채택된 의제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4. ㄹ 정책집행 - 결정된 정책을 실제 제도와 행정으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5. ㅁ 정책평가 - 집행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 의제가 정해져야 대안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며, 평가는 집행 결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ㄷ→ㄴ→ㄹ→ㅁ 순서가 맞다. 교육문제가 먼저 사회적 쟁점이 된 뒤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그다음 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가 이어진다.
2번 X: 틀린 부분은 ㅁ 정책평가를 너무 앞에 둔 점이다. 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뒤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ㄱ→ㄷ→ㄴ→ㄹ→ㅁ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ㄷ 정책의제설정을 출발점으로 두고 ㄱ 사회적 이슈화를 뒤로 미룬 점이다. 사회적 이슈화가 선행되어야 정책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ㄷ→ㄴ→ㄹ→ㅁ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ㅁ 정책평가를 ㄱ 사회적 이슈화보다 앞에 둔 점이다. 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초기에 올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ㄱ→ㄷ→ㄴ→ㄹ→ㅁ이다.

오답 포인트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같은 단계처럼 묶어 기억하면 순서가 흔들린다. 의제설정은 무엇을 정부가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이고, 정책결정은 어떤 대안을 채택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과정 문항은 문제의 공론화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의제 채택, 대안 선택, 실행, 사후 평가 순으로 끊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슈화 → 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의 흐름은 문제 제기 후 채택, 채택 후 결정, 결정 후 실행, 실행 후 평가이다.

NoteBase

문 5. 현행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③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둔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선거, 교육감 임기, 부교육감 보직,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용어 풀이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다.
계속 재임은 임기를 연속하여 이어 가는 것을 뜻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되고, 교육감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된다.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현행 명칭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을 금지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1번은 맞다.
2번 O: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된다. 임기와 연임 제한을 함께 묻는 기본 조문이므로 2번은 맞다.
3번 O: 부교육감은 교육감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보직 자격을 정확히 적었으므로 3번은 맞다.
4번 X: 틀린 표현은 '지역교육청을 둔다'이다. 현행 법률상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다. 올바르게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4번은 조직 설치 근거 자체는 비슷하게 적어 두고 명칭만 옛 용어인 '지역교육청'으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조문 구조가 익숙하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현행 명칭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행 조직 법규 문제는 주체, 임기, 보직 요건, 기관 명칭처럼 조문에 박혀 있는 고정 표현부터 확인한다. 내용이 대체로 맞아 보여도 명칭 하나가 옛 제도 용어이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육감은 정당 추천 없음, 임기 4년·계속 재임 3기, 하급기관 명칭은 교육지원청이다.

NoteBase

문 6. 아이즈너(Eisner)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적 감식안에 토대한 표준화 검사가 필요하다.

② 평가는 교육과정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④ 행동적 목표에 대한 보완으로 표현적 결과(expressive outcomes)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이론에서 교육적 감식안, 영교육과정, 표현적 결과, 과정 중심 평가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아이즈너는 교육을 예술적이고 질적인 활동으로 이해한 학자이다.
교육적 감식안과 교육비평을 통해 수업의 질을 섬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영교육과정은 학교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학생이 배우지 못하게 되는 내용까지 교육과정의 일부로 본 개념이다.
표현적 결과는 행동적 목표처럼 미리 세분화하기 어려운 개방적 학습 성과를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교육적 감식안은 교실 상황의 질적 특성을 섬세하게 식별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뜻한다.
따라서 '교육적 감식안에 토대한 표준화 검사'라는 연결이 틀렸다.
아이즈너는 표준화 검사보다 질적 평가와 교육비평을 중시하였다.
틀린 표현은 '표준화 검사가 필요하다'이고, 올바르게는 '교육적 감식안과 교육비평에 기초한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이다.

② O
아이즈너는 평가를 교육과정이 끝난 뒤 결과만 재는 절차로 보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설계, 실행, 개선 전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③ O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은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만큼 무엇을 가르치지 않느냐도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교육내용 선정에서 학교에서 배제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아이즈너는 행동적 목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학습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행동적 목표의 보완 개념으로 표현적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개방적 성과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교육적 감식안'이라는 말 때문에 평가 도구 전반을 떠올리면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아이즈너는 표준화된 측정보다 수업의 질을 읽어 내는 질적 안목과 비평을 강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아이즈너 관련 선지는 '질적 평가', '영교육과정', '표현적 결과'를 먼저 연결해 보면 된다.
반대로 '표준화 검사', '획일적 측정', '행동목표만 중시'가 나오면 아이즈너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아이즈너 = 교육적 감식안, 영교육과정, 표현적 결과, 질적 평가이다.

NoteBase

문 7. 교수매체의 효과적인 선정과 활용을 위한 ASSUR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업계획의 첫 단계는 학습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② 수업목표는 학습자가 수업 중 경험할 학습활동으로 제시한다.

③ 학습 내용에 대한 연습과 피드백 기회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④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SSURE 모형의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특성, 선행지식, 학습양식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수업목표 진술은 학습자가 수업 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행동 중심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학습자 참여 유도는 연습, 반응,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단계이다.
평가와 수정은 수업의 효과와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ASSURE의 첫 단계 A는 Analyze learners로, 수업 설계의 출발점을 학습자 분석에 둔다.
2번: X. 틀린 부분은 "학습자가 수업 중 경험할 학습활동으로 제시한다"이다. ASSURE의 목표 진술은 활동 목록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 후 수행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성취행동으로 제시한다.
3번: O.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단계는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직접 반응하고 연습하며 피드백을 받도록 설계하는 단계이므로 능동적 참여 유도라는 설명이 맞다.
4번: O. 마지막 E는 Evaluate and revise로, 수업의 효과와 영향,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한다.

오답 포인트

수업목표와 학습활동을 같은 것으로 섞으면 틀리기 쉽다. 목표는 학습 결과를 진술하는 것이고, 활동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업 중 수행하는 과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SSURE 문항은 각 단계의 동사를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학습자 파악은 Analyze, 목표 진술은 State objectives, 매체 선정은 Select, 활용은 Utilize, 참여 유도는 Require participation, 평가는 Evaluate and revise에 대응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ASSURE는 학습자 분석에서 시작하고, 목표는 결과행동으로 쓰며, 끝에서는 평가 후 수정이 이루어진다.

NoteBase

문 8.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자와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비고츠키(Vygotsky) -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② 콜버그(Kohlberg) - 아동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한다.

③ 프로이트(Freud) - 생의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④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 인간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가와 그 대표 개념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인물·이론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 인지발달은 또래·성인과의 상호작용, 언어, 근접발달영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 도덕 판단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의 단계로 발달한다.
프로이트: 심리성적 발달 이론 — 발달은 성적 에너지와 각 발달 단계의 갈등 해결 방식에 따라 설명된다.
브론펜브레너: 생태학적 체계 이론 — 발달은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까지 여러 환경체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비고츠키가 아니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비고츠키'이고, 올바르게는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한 적응으로 인지발달을 설명한다'이다.
② X: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전인습, 인습, 후인습 수준으로 설명한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한다'는 구분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콜버그'와 '타율적·자율적 도덕성 단계'의 연결이고, 올바르게는 '콜버그는 도덕 판단이 전인습에서 후인습으로 발달한다고 본다'이다.
③ X: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프로이트'이고, 올바르게는 '에릭슨은 각 생애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 해결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이다.
④ O: 브론펜브레너는 인간 발달을 개인 내부만이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 여러 수준의 환경체계와 그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선지의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이라는 진술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정확히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오답은 각 이론가의 유명 키워드를 서로 바꾸어 놓은 데서 나온다. ①은 피아제의 동화·조절을 비고츠키에 붙였고, ②는 피아제의 타율적·자율적 도덕성을 콜버그에 붙였으며, ③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프로이트에 붙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이름을 보면 대표 손잡이 개념을 바로 떠올리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근접발달영역, 피아제는 동화·조절, 콜버그는 도덕성 3수준,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 브론펜브레너는 생태학적 환경체계를 연결하면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피아제=동화·조절, 콜버그=도덕성 3수준, 에릭슨=심리사회적 위기, 브론펜브레너=생태체계, 비고츠키=사회적 상호작용이다.

NoteBase

문 9. 교육평등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정책은 능력주의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는다.

② 산골에 사는 어린이 대상 통학 교통편 무상지원 정책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의 사례이다.

③ 미국의 헤드스타트사업(Project Head Start), 한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육결과의 평등'의 사례이다.

④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은 '교육조건의 평등'의 사례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평등관의 단계별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허용적 평등은 성별, 계층, 지역 등의 이유로 교육 기회를 막지 않고 학교 문호를 개방하는 평등관이다.
보장적 평등은 무상교육, 의무교육, 장학금, 통학 지원처럼 실제 취학과 진학이 가능하도록 돕는 평등관이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학교 시설, 교사 수준, 교육과정 등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평등관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보상교육을 통해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려는 평등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결과의 평등은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므로 능력주의 지지자들에게 경쟁과 선발의 원리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산골 어린이 대상 통학 교통편 무상지원은 학교 문호만 열어 두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돕는 조치이므로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의 사례이다.

③ O
미국의 헤드스타트사업과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결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보상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교육결과의 평등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O
학교 시설,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 차이를 줄이는 정책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환경 자체를 균등화하는 것이므로 교육조건의 평등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을 모두 교육기회와 관련된 개념으로만 묶어 두면 ②처럼 헷갈리기 쉽다. 차별을 없애 문호를 여는 단계는 허용적 평등이고, 통학비·수업료·장학금처럼 실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은 보장적 평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차별 금지나 입학 허용처럼 문호 개방에 머물면 허용적 평등으로 판단한다. 취학 비용, 통학, 장학금처럼 실제 학교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 보장적 평등으로 판단한다. 학교 여건을 맞추면 교육조건의 평등,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교육이면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허용은 문호 개방, 보장은 실제 취학 지원, 조건은 학교 여건, 결과는 보상교육이다.

NoteBase

문 10. 교육과정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Young)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밖 정치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② 지루(Giroux)에 따르면 학교가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적·정치적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

③ 애니언(Anyon)은 학교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④ 애플(Apple)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적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과정 사회학의 주요 학자와 대표 주장 및 비판 지점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Young는 학교지식이 중립적 진리가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선택·조직된다고 본다.
Giroux는 학교의 재생산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저항과 변혁 가능성을 함께 본다.
Anyon은 사회계층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식, 과제, 숨은 교육과정이 달라진다고 분석한다.
Apple은 교육과정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재생산 논의의 한계도 지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영은 교육과정과 학교지식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그것이 학교 밖의 권력구조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다.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밖 정치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O
지루는 재생산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학자로, 학교가 불평등한 경제적·정치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를 저항 가능성의 공간으로도 본다는 점이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연결이다. 학생의 언어 사용과 사회계층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분석한 것은 번스타인의 언어부호 이론이다. 애니언은 사회계층에 따라 학교수업의 내용, 과제 형태, 숨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조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④ O
애플은 교육과정 사회학이 갈등과 재생산의 부정적 측면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갈등의 생산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시문은 애플의 비판을 반영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회계층'이라는 공통어 때문에 애니언과 번스타인을 섞기 쉬운 선지이다. 언어와 계층의 연결은 번스타인이고, 계층별 학교경험과 숨은 교육과정은 애니언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②도 지루를 단순 재생산론자로만 외우면 흔들릴 수 있으나, 이 선지는 재생산 측면만 진술한 것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매칭 문제는 인물명보다 대표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Young는 지식과 권력, Giroux는 재생산 비판과 저항, Anyon은 계층별 학교경험과 숨은 교육과정, Bernstein은 언어부호, Apple은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재생산론 비판으로 정리하면 선지 판별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Young는 지식과 권력, Giroux는 재생산과 저항, Anyon은 계층별 학교경험, Bernstein은 언어부호, Apple은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11.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평가의 목적은 교수-학습 개선에 있다.

② 형성평가는 수업 전 학습곤란 정도를 파악한다.

③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④ 형성평가는 학습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성평가와 진단평가의 실시 시기와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학습의 진전 정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평가이다.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선수학습, 학습곤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평가이다.
구별 축은 실시 시기와 사용 목적이다. 형성평가는 진행 중 조정, 진단평가는 시작 전 준비도 파악에 초점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형성평가의 핵심 목적은 성적 판정이 아니라 교수·학습 개선이다. 수업 중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방법, 속도를 조정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업 전 학습곤란 정도를 파악한다"는 표현이다.
수업 전에 선수학습 정도나 학습곤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평가는 형성평가가 아니라 진단평가이다.

③ O
형성평가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하므로 학습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④ O
형성평가는 학습 진도와 이해 수준을 확인하여 학습의 진행 속도나 수업 전개를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②의 "수업 전"이라는 시기 표현이다. 형성평가와 진단평가는 모두 학습을 돕는 기능을 가지므로 목적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형성평가는 수업 중, 진단평가는 수업 전이라는 시기 차이로 구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 유형 문제는 먼저 실시 시기를 본다. 수업 전 출발점 행동·선수학습 파악이면 진단평가이고, 수업 중 피드백·보충·속도 조절이면 형성평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단평가는 시작 전 점검, 형성평가는 진행 중 조정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협동학습기법은?

모둠원들에게 학습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할당하고, 해당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별로 학습한다. 이후, 원래 모둠에 돌아와서 동료학습자를 교육한다.

① 직소모형(Jigsaw)
② 팀토너먼트게임모형(TGT: Teams Games Tournament)
③ 팀보조개별학습모형(TAI: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④ 성취과제분담모형(STAD: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협동학습 모형의 절차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전문가 집단 학습 뒤 원모둠으로 돌아와 동료를 가르치는 구조가 직소모형의 핵심이라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직소모형은 한 과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구성원이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된 뒤 원모둠에서 서로 가르치며 전체 학습을 완성하는 협동학습 모형이다.
TGT는 팀 학습 후 유사한 수준의 학생끼리 게임·토너먼트에 참여하여 팀 점수에 기여하는 모형이다.
TAI는 개별화된 학습자료를 각자 풀고 팀원이 점검·보조하는 팀보조개별학습 모형이다.
STAD는 교사 수업 후 팀 학습을 하고 개인 퀴즈의 향상 점수를 팀 성취로 반영하는 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뒤,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 동료를 가르치는 절차는 직소모형의 전형적 구조이다.
② X: TGT의 핵심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팀 학습 후 게임과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데 있다. 틀린 표현은 전문가 집단을 통한 상호교수 구조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학습 후 경쟁적 게임을 통해 팀 점수에 기여하는 모형이다.
③ X: TAI의 핵심은 세부 영역 분담이 아니라 개별화 학습과 팀의 보조이다. 틀린 표현은 세부 영역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각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팀원이 점검과 도움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④ X: STAD의 핵심은 교사 수업, 팀 학습, 개인 퀴즈, 향상 점수의 팀 반영이다. 틀린 표현은 전문가 집단 학습 후 원모둠에서 동료를 가르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팀 학습 뒤 개인 퀴즈를 통해 개인 향상도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직소, TGT, TAI, STAD는 모두 협동학습 모형이라서 모둠 활동이라는 공통점만 보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협동학습 일반 특징과 직소모형 고유 절차를 섞어 놓은 데 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과 '원모둠 복귀 후 상호교수'가 나오면 직소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협동학습 모형 문제는 모둠이 있다는 공통점보다 운영 절차의 결정적 표지를 먼저 본다. 전문가 집단과 상호교수는 직소, 게임·토너먼트는 TGT, 개별화 학습과 팀 보조는 TAI, 개인 퀴즈 향상점수는 STAD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소는 분담-전문가 집단-원모둠 재교수의 흐름이고, TGT는 게임, TAI는 개별화 보조, STAD는 수업-팀학습-개인퀴즈-향상점수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제도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① 독학학위제
② 학점은행제
③ 평생학습계좌제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점은행제의 핵심 정의와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진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 충족 시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뒤 국가가 실시하는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필요할 때 증명하는 제도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표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학교 안팎의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이라는 설명이다. 독학학위제는 학점 누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 합격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② O. 학교 밖 학습경험과 자격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이르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학점은행제 설명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학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점 인정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학습이력을 누적·관리·증명하는 제도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표준화한 제도이지 학점을 쌓아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평생교육 관련 제도는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학점 인정과 학력 인정이면 학점은행제, 시험 합격이면 독학학위제, 학습이력 관리면 평생학습계좌제, 직무능력 표준화면 국가직무능력표준제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학점으로 인정', '학점 누적',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 인정'이 함께 나오면 학점은행제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시험 합격이면 독학학위제, 이력 관리면 평생학습계좌제, 직무 기준 제시면 국가직무능력표준제이다.

암기 포인트

학점은행제는 학점 누적 후 학력 인정, 독학학위제는 시험 합격 후 학위 취득,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습이력 저장, 국가직무능력표준제는 직무능력 표준화이다.

NoteBase

문 14.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존주의는 본질주의를 비판하면서 태동하였다.

② 본질주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습능력을 강조하였다.

③ 허친스(Hutchins)는 '위대한 고전(Great Books)' 읽기 교육을 주장하였다.

④ 본질주의는 인류의 문화 유산 중 핵심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의 비판 대상과 교육 내용의 초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질주의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지식과 읽기·쓰기·셈하기 같은 기초기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다. 키워드는 기초학습능력, 핵심교과, 문화유산의 핵심이다.
항존주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와 인간 이성을 계발하기 위해 위대한 고전과 자유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키워드는 영원한 진리, Great Books, 지적 훈련이다.
본질주의는 무엇이 필수적인가에 무게를 두고, 항존주의는 무엇이 영속적인가에 무게를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본질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두하였다'이다. 항존주의는 본질주의를 비판하며 나온 사조가 아니라 진보주의와 아동중심 교육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전통주의 교육사조이다. 올바르게는 '항존주의는 진보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두하였다'이다.
② O. 본질주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습능력과 핵심 교과의 습득을 중시한다. 공통의 기본 학업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O. 허친스는 항존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위대한 고전을 읽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고전을 통해 영원한 진리와 이성적 판단력을 기른다고 보았다.
④ O. 본질주의는 인류 문화유산 가운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유산의 핵심 전수가 본질주의의 중요한 주장이다.

오답 포인트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모두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보수적 교육사조이므로 둘 사이의 선후관계나 상호 비판 관계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본질주의의 기초기능 강조와 항존주의의 고전 읽기 강조를 뒤바꾸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기초기능, 핵심교과, 문화유산의 핵심이 나오면 본질주의로 판단한다. 영원한 진리, 이성의 계발, 위대한 고전이 나오면 항존주의로 판단한다. 항존주의의 비판 대상은 대체로 진보주의이지 본질주의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본질주의는 기초기능과 핵심교과, 항존주의는 영원한 진리와 고전 읽기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조는?

킬패트릭(Kilpatrick)의 교육사상을 지지한다.
아동중심 교육관에 기반하여 아동의 흥미를 중시한다.
교육원리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철학적 기반을 둔다.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이지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① 구성주의
② 인본주의
③ 진보주의
④ 사회재건주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핵심 표지인 아동중심, 흥미중심, 프래그머티즘, 듀이·킬패트릭 계열의 구상을 다른 교육사조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진보주의는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현재 생활 그 자체로 본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학습이론에 초점이 있다.
인본주의는 자아실현, 전인적 성장, 개인의 감정과 의미를 중시한다.
사회재건주의는 학교를 사회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킬패트릭의 프로젝트법과 교육사상은 진보주의를 대표한다. 제시문은 킬패트릭, 아동의 흥미, 프래그머티즘을 묶고 있으므로 구성주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구성주의'이고, 올바르게는 '진보주의'이다.

② X
아동중심과 흥미중심이라는 표현만 보면 인본주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킬패트릭과 프래그머티즘은 진보주의의 직접 단서이다. 인본주의는 매슬로, 로저스의 자아실현과 전인교육이 중심이다. 틀린 표현은 '인본주의'이고, 올바르게는 '진보주의'이다.

③ O
진보주의는 교육원리를 프래그머티즘에 두고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시한다. 듀이의 '교육은 생활 그 자체'라는 관점과 킬패트릭의 프로젝트법도 진보주의의 대표 내용이므로 옳다.

④ X
사회재건주의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려는 사조이다. 제시문의 핵심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아동중심, 생활중심, 경험중심 교육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재건주의'이고, 올바르게는 '진보주의'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아동중심'과 ④의 '현재 생활'만 따로 떼어 보면 다른 사조와 섞기 쉽다. 그러나 킬패트릭, 프래그머티즘, '교육은 생활 그 자체'가 함께 나오면 진보주의로 묶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듀이·킬패트릭, 프래그머티즘, 아동의 흥미, 생활중심이라는 표지가 보이면 먼저 진보주의를 떠올린다.
자아실현이 전면에 나오면 인본주의, 사회개혁이 전면에 나오면 사회재건주의, 지식의 능동적 구성이 전면에 나오면 구성주의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듀이·킬패트릭·프래그머티즘·아동흥미·생활중심 = 진보주의이다.

NoteBase

문 16. 행동치료의 방법 중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음부터 강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고 불안이 감소될 때까지 노출을 계속하는 방법이다.

②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나누어 주어 일정한 개수가 모이면 실제적인 강화물로 교환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③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차례로 경험시킴으로써 특정 사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④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적응적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줌으로써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동치료 기법 중 체계적 둔감법과 홍수법, 토큰경제, 일반적 행동수정 기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계적 둔감법은 근육 이완 상태를 만든 뒤 불안 위계를 따라 약한 자극부터 강한 자극까지 점진적으로 노출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홍수법은 처음부터 가장 강한 불안 자극에 장시간 노출하여 불안 반응의 소거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토큰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에 토큰을 주고 일정량이 되면 강화물로 교환하게 하는 방법이다.
행동수정은 소거, 강화, 벌 등의 원리를 사용하여 문제행동을 줄이고 적응행동을 늘리는 넓은 범주의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처음부터 강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이다. 이는 체계적 둔감법이 아니라 홍수법의 설명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을 병행하면서 약한 불안 자극부터 단계적으로 노출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토큰을 나누어 주어 일정한 개수가 모이면 실제적인 강화물로 교환"이다. 이는 토큰경제의 설명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보상 교환이 아니라 이완과 점진적 노출을 결합한다.
③ O: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약한 것에서 강한 것까지 차례로 경험시키는 설명은 체계적 둔감법의 핵심 절차와 일치한다. 불안 위계와 이완 반응의 결합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적응적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준다"이다. 이는 소거와 정적 강화를 활용하는 일반적 행동수정의 설명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문제행동의 강화물을 직접 조작하기보다 불안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을 약화시킨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체계적 둔감법과 홍수법은 모두 노출을 사용하므로 혼동되기 쉽지만, 구별 기준은 "강한 자극부터 한꺼번에 노출하는가"와 "이완 상태에서 약한 자극부터 단계적으로 노출하는가"이다. ①의 "처음부터 강한"과 ②의 "토큰", ④의 "강화물 제거"가 함정 단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안 치료 기법 문제에서는 먼저 이완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노출 순서를 본다. 이완과 불안 위계가 함께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고, 처음부터 강한 자극이면 홍수법이며, 토큰 교환이 나오면 토큰경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 후 약한 자극부터, 홍수법은 강한 자극부터, 토큰경제는 토큰 교환이다.

NoteBase

문 17. 목표지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접근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그림을 못 그린다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아 미술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였다.

③ 기말시험에서 경쟁자인 동급생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④ 뛰어난 운동선수가 실력이 떨어질 것 같아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주저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표지향이론에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숙달접근목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행접근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서 유능함을 드러내려는 목표이다. 비교 기준이 타인이며 경쟁, 우월성, 능력 과시가 핵심 키워드이다.
수행회피목표는 무능하게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피하려는 목표이다. 비교 기준이 타인의 평가이며 실패 노출 회피, 비난 회피가 핵심 키워드이다.
숙달접근목표는 과제를 배우고 이전의 자신보다 향상되려는 목표이다. 비교 기준이 자기 자신이며 성장, 향상, 숙달이 핵심 키워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놀림을 받을 것 같아'와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는 반응이므로 수행회피목표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수행접근목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난을 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이다.
② X.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전의 자기 수준을 넘어서려는 목표이므로 숙달접근목표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수행접근목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자기 향상을 지향하는 숙달접근목표이다.
③ O. '경쟁자인 동급생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는 타인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어 능력을 입증하려는 목표이므로 수행접근목표에 해당한다.
④ X. '실력이 떨어질 것 같아'와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주저하였다'는 낮은 수행이 드러날 위험을 피하려는 반응이므로 수행회피목표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수행접근목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무능해 보일 가능성을 피하는 수행회피목표이다.

오답 포인트

수행접근목표와 숙달접근목표는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지난번보다 더 나은'은 자기 기준이므로 숙달접근이고, '동급생보다 더 잘'은 타인 기준이므로 수행접근이다.
또한 '비난받을까 봐', '실력이 떨어질까 봐'처럼 부정적 평가 회피가 드러나면 수행회피로 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비교 기준을 먼저 찾으면 된다. 타인보다 잘하려는 내용이면 수행접근, 이전의 자신보다 나아지려는 내용이면 숙달접근, 못해 보일까 봐 피하는 내용이면 수행회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수행접근은 남보다 우수, 숙달접근은 어제보다 향상, 수행회피는 못해 보일 위험 회피이다.

NoteBase

문 18. 블룸(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목표를 행위동사로 기술한다.

② 교육목표 간의 유목 구분이 명확하다.

③ 통찰이나 직관 같은 인지능력이 교육목표에서 제외된다.

④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는 인지작용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의 기본 성격과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은 교육목표를 관찰 가능한 학습행동 중심으로 분류한 틀이다. 인지적 영역은 단순한 인지작용에서 복잡한 인지작용으로 위계화되지만, 각 범주의 경계가 완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학습목표를 학생의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하려 하므로 행위동사를 사용해 기술한다는 설명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육목표 간의 유목 구분이 명확하다'는 표현이다. 블룸의 분류는 각 범주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경계가 겹치고,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올바르게는 '교육목표 간의 구분이 절대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이다.

③ O
블룸의 분류는 관찰 가능한 행동목표를 중시하므로 통찰이나 직관처럼 즉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인지능력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거나 목표 진술에서 제외되기 쉽다.

④ O
인지적 영역의 목표는 지식에서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갈수록 인지작용이 복잡해지는 위계로 조직된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블룸 분류를 체계적이므로 범주 구분도 완전히 명확하다고 연결하면 ②에 걸리기 쉽다. 위계적 조직과 범주 경계의 명확성은 다른 문제인데, 블룸 분류는 전자는 인정되지만 후자는 비판 대상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블룸 관련 선지는 행동목표 진술, 인지영역의 위계성, 범주 경계의 명확성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면 된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시하면 맞는 설명이고, 범주가 완전히 칼같이 나뉜다고 하면 틀린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블룸은 행위동사와 위계성은 강점이고, 범주 경계의 불명확성과 직관·통찰 포착의 한계는 약점이다.

NoteBase

문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원은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② 등 · 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③ 학교안전교육은 교원자격증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

④ 성매매 예방교육은 학교장이 실시해야 하는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교육의 대상·내용과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시간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여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다.
학교안전교육은 학교장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이다.

핵심 구분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본다.
안전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장이지만, 실제 담당은 교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맡기거나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성매매 예방교육도 법이 열거한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학교안전교육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리다.
틀린 표현: "교원은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 "교원은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

2번: O.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등·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3번: X. 법은 학교안전교육을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틀린 표현: "교원자격증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교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가 담당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4번: X. 성매매 예방교육은 법이 열거한 학교안전교육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실시해야 하는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틀린 표현: "성매매 예방교육은 …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성매매 예방교육은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학교안전교육의 대상과 담당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교 안에서만 학교안전사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매매 예방교육이 학교안전교육 목록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법이 묻는 것이 대상인지, 교육 내용인지, 사고 범위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그다음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포함 여부, 등·하교 시간 포함 여부, 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열거 항목 포함 여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와 위탁할 수 있다의 차이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학교안전교육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대상이고, 등·하교도 교육활동이며, 성매매 예방교육도 포함된다.

NoteBase

문 20.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율곡 이이의 책은?

그 독서하는 순서는 먼저 『소학』으로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으로는 『대학』과 『근사록』으로 그 큰 틀을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와 『맹자』, 『중용』, <오경>을 읽고, 그 사이사이에 역사서와 선현들의 성리서를 읽어 의취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한다.

① 『만언봉사』
② 『성학십도』
③ 『성학집요』
④ 『학교모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율곡 이이의 저술 가운데 학교 교육 규범과 독서법을 담은 책을 다른 저술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만언봉사: 선조에게 시정 개혁을 건의한 장문의 상소문이다.
성학십도: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 도설서이다.
성학집요: 율곡 이이가 군주의 수양과 정치 원리를 정리한 제왕학서이다.
학교모범: 율곡 이이가 학교 생활 준칙과 독서 순서, 수양 규범을 정리한 교육 훈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만언봉사』는 재해와 시정 문제를 계기로 올린 개혁 상소문이므로 학교의 독서 순서나 학습 규범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내용을 『만언봉사』에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학교 교육 준칙을 정리한 『학교모범』에 해당한다.
2번 X: 『성학십도』는 율곡 이이의 저술이 아니라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책이다. 또한 성학의 도설을 통해 군주 수양을 돕는 성격이 강하므로 제시문 같은 학교 독서법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를 율곡의 해당 저술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성학십도』는 이황의 저술이고 제시문은 『학교모범』의 내용이다.
3번 X: 『성학집요』는 율곡의 저술이기는 하지만 군주가 성학을 익히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원리를 정리한 책이다. 제시문처럼 『소학』, 『대학』, 『근사록』, 『논어』, 『맹자』, 『중용』, 오경의 독서 순서를 제시하는 학교 규범서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독서법 내용을 『성학집요』에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학교모범』에 실린 내용이다.
4번 O: 『학교모범』에는 학교생활의 준칙과 함께 글 읽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소학』으로 근본을 세운 뒤 『대학』과 『근사록』으로 규모를 정하고 이어 여러 경서를 읽으라는 독서 순서가 제시된다.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율곡의 저술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만언봉사』와 『성학집요』를 고르면 틀리기 쉽다. 제시문에는 학교, 독서 순서, 『소학』, 『대학』, 『근사록』 같은 교육과정 단서가 드러나므로 상소문이나 제왕학서가 아니라 교육 훈규로 좁혀야 한다. 또한 『성학십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퇴계 이황의 저술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술 매칭 문제에서는 먼저 문장의 핵심 기능을 잡으면 된다. 학교 규범과 독서법을 설명하면 『학교모범』, 군주 수양과 제왕학이면 『성학집요』, 시정 개혁 건의 상소이면 『만언봉사』, 성학 도설이면서 퇴계 저술이면 『성학십도』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학교 규범과 독법은 『학교모범』, 군주 성학은 『성학집요』, 개혁 상소는 『만언봉사』, 『성학십도』는 퇴계 이황의 저술이다.

NoteBase